

# 몽골·임팩트의 일환으로서의 「몽골습래」

윗카이치 야스히로 四日市康博 (쇼와여자대학)

## 발표 요지

13 세기에서 14 세기에 걸쳐 몽골제국 및 그 계승 정권은 유라시아 각지를 석권해 그 지배와 영향이 다양한 지역과 사회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유라시아의 동서에서는 언어·종교·민족 등 문화적인 범주를 초월한 몽골적 공통양식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배경에 몽골의 패권에 의한 동서 교통의 안정을 의미하는 「몽골의 평화」Pax Mongolica 가 있다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몽골 패권 하의 유라시아가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향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몽골과 유라시아 각지의 문화권과 사회는 때로는 충돌 대립하며 공존 융합하였고 다각적 중층적으로 양자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즉 유라시아 각지에 있어서 이른바「몽골의 충격」Mongol Impact 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각 지역과 사회의 반응이 존재 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교류의 내용은 물론 이후의 영향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의 「몽골의 충격」에는 단기적 정치적·군사적 충격을 포함해 장기적인 경제적·문화적 충격도 포함된다. 결국 「몽골의 평화」와 「몽골의 충격」은 동시에 존재하는 표리일체의 개념으로 유라시아 전체에 있어서의「몽골의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각지에 있어서의「몽골의 충격」과 이에 대한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몽골로부터 두 번의 침공을 받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몽골습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일본과 원이라는 2 국간 관계, 또는 여기에 고려를 더한 3 국간 관계에 의한 외교·군사 관계의 관점에 바탕한 것이었다.

몽골제국 = 원조의 대외 계략은 일본 뿐 아니라 베트남, 참파, 미얀마, 버마, 자바, 류큐, 사할린 등  
해역아시아 전역에 이르며 이들은 결코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해역 아시아  
각지에서의「몽골의 충격」의 영향은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된다.

## 약력

---

1995 년 와세다대학 (제 1 문학부)졸업. 2004 년 와세다대학 문학연구과 박사후기 과정 학점취득 퇴학.

2007 년 학위 (박사(문학))취득. 2005 /4 - 2008 /3 규슈대학 인문과학연구원 전임강사(임기제) .

2009 년~고마자와대학 문학부 비상근강사. 2012 년~와세다대학 종합연구기구 중앙유라시아

역사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 2014 년~쇼와여자대학 국제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전문분야는 몽골제국기에 있어서의 동서 유라시아 교류사, 해역 아시아교류사.

주요 저서『물품에서 본 해역 아시아사 ---몽고~송원시대의 아시아와 일본의 교류』후쿠오카:

규슈대학출판회, 2008.3.